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6 (은 세상이 주님을)	234 (우리 자모)	151 (주여 임하소서)	27 (이세상 덧없이)

제 1독서 | 열왕기 상 17,10-16

화답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좌)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우)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 히브리서 9,24-2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2,38-44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Today's Gospel - Mark 12,38-44

In the course of his teaching Jesus said to the crowds,
"Beware of the scribes, who like to go around in long robes and accept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seats of honor in synagogues, and places of honor at banquets. They devour the houses of widows and, as a pretext recite lengthy prayers. They will receive a very severe condemnation."

He sat down opposite the treasury and observed how the crowd put money into the treasury. Many rich people put in large sums.

A poor widow also came and put in two small coins worth a few cents. Calling his disciples to himself, he said to them,

"Amen,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 contributors to the treasury. For they have all contributed from their surplus wealth, but she, from her poverty, has contributed all she had, her whole livelihood."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교부들의 성경 주해 -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 기도론>

한걸음 씩 나아가기 맨 처음부터 완벽한 삶의 방식을 목표로 삼았다가 나중에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헛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강해지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여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부터 발길을 재촉했다가 지쳐 버리면 결국 병이 나서 여러 날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걷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적당한 속도로 걷기 시작하면 먼길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자신을 서서히 담금질해야 합니다.**

옛날 선조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갈래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당혹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모두 본받으려고 의욕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망칠 따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한 상태에 걸맞은 삶의 방식을 고르십시오.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자애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봉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라 지향을 보시고 여러분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

오늘 연중 제32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함에 따라 연중 제32주일에 '평신도 주일'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평신도(平信徒)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품과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며,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봉사직)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평신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라이코스] ($\lambda\alpha\iota\kappa\omicron\varsigma$)는 3세기 이후 교회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많은 저술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속되다.'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1789~1799)을 기점으로 교회를 거부하는 반성직주의와 세속주의가 널리 퍼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해에 맞서, 신학자 콩가르 추기경 (Y.Congar, 1904~1995)은 교회 안의 평신도 역할을 연구하면서 [라이코스]라는 단어가 속되다는 의미를 지니면서도 이교 백성에 반대되는 거룩한 하느님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 ($\lambda\alpha\acute{o}\varsigma$)에서 유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1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는 평신도는 수동적으로 성직자나 수도자만을 바라보며 그 지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느님 백성 전체와 협력하면서 교회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모든 평신도가 친교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며 세상에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Teresa of Avila)>

- 기도에 관하여 (3)

성녀 데레사는 잘 드린 '소리 기도'는 수준 높은 묵상 기도가 될 뿐더러 영혼을 높은 관상의 경지까지 인도해주는 최상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성녀는 각 사람이 지닌 기질, 교육 정도에 따라 소리 기도가 더 맞는 사람, 묵상 기도가 더 맞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각자의 기질, 영혼의 색깔에 따라 더 잘 맞는 기도 방법을 활용해서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도록 권했다.

즉,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사랑의 만남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보다 더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성녀는 구송 기도를 통해 무학문맹이지만 높은 관상의 경지까지 도달한 상당히 영성적인 수녀님의 경우를 들어 이 점을 강조해서 가르쳤다.

이런 맥락에서 성녀는 자신의 주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완덕의 길』을 통해 기도 중에 으뜸이 되는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잘 드릴 것을 권하면서 작품의 후반부 전체를 이 기도에 대한 해설에 할애했다. 그만큼 성녀는 소리 기도가 지닌 가치를 높이 샀다. '소리 기도'란 말 그대로 입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교회가 신자들을 위해 만든 일정한 기도문을 바탕으로 입으로 읊는 기도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대표적 소리 기도인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비롯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묵주기도', 나아가 '시간경', 그리고 넓게 보면 '미사'도 이 범주에 속한다. 성녀는 소리 기도를 함에 있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의식하도록 권고했다. 즉,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화 상대자인 하느님의 현존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가르쳤다. 성녀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기도의 효과는 얼마나 하느님을 기도 안에 현존시키고 거기에 머무는가에 달렸다고 보았다.



공지 사항

1.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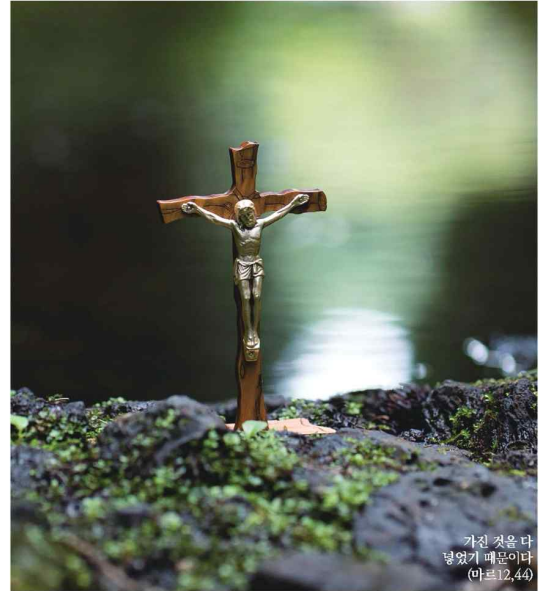
- 다음주 주일 미사 후에는 '간식 나눔'이 있습니다.
- 12월부터 1월까지의 식사 및 간식 나눔도 잠시 방학을 맞이합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앞으로의 만남을 더욱 기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동안 준비 및 뒷정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소공동체 반 이동 가능 안내

-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속해있는 소공동체 반에서 다른 소공동체 반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일(주일)까지 캔버라 성당으로 '성함, 세례명, 연락처, 희망 소공동체반'의 내용을 성당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canberra.kcc@gmail.com
- 신청해주신 내용은 12월에 새로이 선출되는 각 소공동체장 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 달력 배포

다음주 (11월 17일)부터 2025년 달력을 성당 입구에서 나누어드립니다. 벽걸이와 탁상 달력 2가지 종류를 마련하였습니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부씩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0월 27일	유아·청소년: 11명	성인: 41명
11월 3일	다문화미사 참석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1월 10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11월 17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1월 10일)	요한반
다음주 (11월 17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10월 26일 ~ 11월 8일)

봉 헌 금	\$ 1,035			
교 무 금	\$ 252.70			
강원혜	권모순	김천주	남궁영근	서경원
손재호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한상지
최월미	허준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투병 중인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